



렉테크(RegTech) 현황과 전망

변혜원 연구위원

금융규제 강화, 정보기술의 발전, 핀테크의 확산은 금융시장에서 규제 및 준법 의무 준수에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렉테크(RegTech)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음.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는 감독자료 보고, 위험관리, 신원관리 및 통제, 법규준수, 거래 모니터링 분야에서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관련 렉테크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감독당국은 셉테크(SupTech: Supervisory Technology)를 이용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상세한 금융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금융회사 감독에 텍스트분석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데이터분석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렉테크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함께 렉테크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야 할 것임

- 렉테크(RegTech)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디지털 데이터, 컴퓨터 네트워크, 새로운 데이터분석 기법 등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규제 및 준법 의무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¹⁾
 - 렉테크는 크게 금융회사 입장에서의 렉테크(RegTech for Financial Institutions)와 감독자 및 규제자 입장에서의 렉테크(RegTech for Supervisors and Regulators)로 나눌 수 있음
 - 감독자 및 규제자 입장에서의 렉테크는 셉테크(SupTech: Supervisory Technology)라고도 불리며, 감독업무에 혁신적인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이룸
- 금융규제 강화, 정보기술의 발전, 핀테크의 확산은 금융산업의 렉테크(RegTech)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음
 - 금융정책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기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규제에 더하여 소비자보호, 시장경쟁을 포함하는 다방면의 규제를 강화하였음

1) "Regtech is the use of new technologies to solve regulatory and compliance requirement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2016), *RegTech in 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Solutions for Compliance and Reporting*

- 규제 강화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비용을 증가시켰는데, 렉테크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용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수량을 증가시켰으며,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함
 - 핀테크라는 새로운 사업모형이 시장에 야기한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방식도 변화된 시장에 맞게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핀테크는 혁신적인 데이터 사용, 새로운 시장참여자,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지만, 데이터보호 및 사생활침해, 사이버보안, 데이터관리 등의 우려를 심화시킴
- 금융감독원도 작년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서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셉테크 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²⁾
- 감독원장 신년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고,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³⁾
-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를 돕는 렉테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⁴⁾ 주요 분야는 크게 감독자료 보고(Regulatory Reporting), 위험관리, 신원관리 및 통제, 법규준수, 거래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⁵⁾
- 렉테크 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보고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여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제공 및 보고를 자동화함으로써 법규준수 과정을 효율화 할 수 있음
 - 위험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규준수 및 감독리스크를 감지하고, 위험노출을 평가하며, 미래의 위협을 예측함
 - 신원관리 및 통제를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Due Diligence)와 고객파악(Know Your Customer)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자금세탁방지나 사기방지 확인 및 적발을 돕기도 함
 - 법규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렉테크 회사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상태 및 새롭게 적용될 규제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추적 서비스를 제공함
 - 한편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통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의 장점을 이용하여 실시간 거래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7. 9),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 2), “2019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4) 본고는 렉테크 회사 또는 셉테크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하는 RegTech Solution을 렉테크 서비스로 번역함. 렉테크 서비스는 행정적 및 운영적 과정을 자동화하고 단순화하며, 데이터와 수단을 디지털화할 뿐 아니라, 데이터분석을 개선함

5) Deloitte(2017)는 현존하는 렉테크 회사를 검토하였는데, 이들이 조사한 289개의 렉테크 회사 중 31개는 규제보고, 43개는 위험관리, 74개는 신원관리 및 통제, 115개는 법규준수, 26개는 거래감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 Deloitte(2017), *RegTech Universe*

모니터링과 회계감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도 함

■ 한편 감독당국은 셉테크를 이용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상세한 금융 데이터를 집적하거나, 금융회사 감독에 텍스트분석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데이터분석기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수작업을 통한 데이터 집적에서 벗어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eNB: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의 통계직접 시스템은 셉테크를 활용해 금융데이터 집적을 효율화한 사례임
 -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은행들은 AuRep(Austrian Reporting Services GmbH)이라고 하는 중앙 감독자료 보고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음⁶⁾
 - AuRep의 주요 업무는 은행이 입력한 데이터(Basic Cube)를 사용하여 다차원의 최종 보고형태(Smart Cube)를 만들어 내는 것임⁷⁾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⁸⁾의 DERA(the Division of Economic and Risk Analysis)⁹⁾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투자자문사의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음
 - 먼저 데이터만을 사용한 자율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에서 독특하거나 평범한 패턴에서 벗어난 보고 행태를 감지한 후, 동 결과를 과거 검사결과와 조합하여 각 투자자문사의 위법 가능성을 예측하는 2단계 데이터분석을 사용함
- 영국 FCA는 자동화된 감독 및 법규준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BARAC(Blockchain Technology for Algorithmic Regulation and Compliance) 프로젝트¹⁰⁾를 진행 중임

■ 렉테크에는 법규준수 과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법규준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원화된 디지털 데이터 사회 기반 체계로의 이행은 사이버 공격, 도난, 사기 등에 대한 위험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¹¹⁾¹²⁾

- 아울러 금융회사는 렉테크 회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지만 자신의 법규준수와 리스크관리 활동의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가진다는 한계가 있음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법규준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렉테크

6) AuRep는 7개의 은행에 의해 2014년에 설립되었는데, 2016년 현재 오스트리아 은행산업의 약 90%의 감독보고를 담당하고 있음

7) <https://www.aurep.at/>

8)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9) DERA는 SEC의 업무에 금융경제학과 데이터분석을 접목하기 위해 2009년에 설치됨; <https://www.sec.gov/dera>

10) <http://blockchain.cs.ucl.ac.uk/barac-project/>

11) EY(2016), *Innovating with RegTech*

12) Armstrong(2017. 5), *The Adoption of RegTech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Ten Years from the Start of the 'Great Financial Crisis'*, ESMA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함께 렉테크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금융감독자가 금융회사의 감독정보 보고 부담을 낮추고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보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컴퓨터가 바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영국 FCA가 주관하는 TechSprints와 같이 정보기술을 사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감독자, 사용자, 기술 개발자 등이 함께 협력하여 해법을 찾아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¹³⁾ **kiri**

13) <https://www.fca.org.uk/events/techsprints/unlocking-regulatory-reporting-techsprint>